

원형경관(原型景觀)의 개념 정립 및 형성요인 연구[†]

- 원형경관(原型景觀) 보전을 위한 기초연구 -

강영은* · 최동욱* · 홍성희* · 임승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이나 국가는 집단과 장소, 장소와 다른 장소들간의 상호관계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게 된다(Entrikin, 1991). 또한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와 많은 전통유산을 그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지역을 전통도시로서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심승희, 1995). 따라서 과거의 경관, 즉 문화재를 포함한 역사경관의 보전이 지역정체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작용해 왔으나, 물리적인 형태의 보전 연구에만 치중해 왔으며, 그 뿌리가 되는 민족, 문화의 원형이 무엇이고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않는 것 같다. 더욱이 지역정체성 및 민족정체성 향상을 위해 보전할 대상이 되는 산물을 역사경관이라고 통칭하여 보전 및 복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역사경관은 변화하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그 물리적 형태, 기능, 의미가 변화하면서 선택적으로 보존, 유지, 생성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경관으로서 보전 및 복원의 시기를 결정시킬 수 있는 과거의 표본 경관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에 의해 남아 있게 된 현재의 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심승희, 1995). 이는 현재의 경관 범주까지 포함하고 있는 광의적 의미의 역사경관이라는 용어 이외에 우리 민족의 사상과 문화가 그대로 투영되어 표출된 협의적 의미로서의 경관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 정의가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민족과 경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실천적인 수단으로서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원형(原型)의 개념과 이론을 경관에 대입시켜 원형경관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며, 원형경관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상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원형경관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원형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원형경관(原型景觀)의 개념 정립 및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의 '원형' 및 '경관'에 대한 논의와 '원형경관'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원형경관이 형성되게 된 사상적·환경적 배경을 논의하면서 원형경관의 속성과 원형경관의 대두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원형경관의 형성요인은 사상과 종교에 의해 형성된 사상적 요인과 경험과 환경에 의한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취락지역을 공간적 범위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를 전체경관, 주거경관, 생산경관, 녹지경관, 가로경관, 기타 경관¹⁾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원형경관(原型景觀)의 개념정립 및 형성요인 분석을 위하여 우선 '원형'과 '원형경관'을 논의한 심리학, 철학, 조경학, 지리학, 민족학의 서적 및 논문 리뷰를 통하여 원형경관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원형경관이 형성될 당시의 경관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사상 연구와 인문지리서 참고 등 문헌조사 연구를 통하여 원형경관 형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III. 원형경관(原型景觀)의 개념 정립

1. 원형(原型)의 논의

1) 사전적 의미의 원형

원형은 같은 음절을 지니며, 다른 의미를 갖는 여러 단어가 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고, 상호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사전적 의미의 원형을 고찰하였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한 개체가 처음 생겨난 시점(first in time)에서 경관을 바라보는 원형(original type)으로서의 개념은 현존하

[†]: 본 연구는 2009년 농촌진흥청의 공동연구사업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표 1. 원형의 사전적 의미

분류	의미
원형(原型) Prototype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본바탕
원형(原形) Original form	본디의 꼴,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기 이전의 단순한 모습
원형(元型)	발생 면에서의 유사성에 의하여 추상화된 유형(생물학, 심리학, 성격학 등의 현상 파악)
원형(原型) Archetype	본능과 함께 유전적으로 갖추어지며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보편적 상징(문학) ²⁾

자료: 국립국어원

고 있는 경관과 자료로서 탐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원형경관의 개념을 원형(archetype)으로 접근하였다.

2) 원형 관련 이론 연구

원형의 다양한 의미 중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개념은 원형(原型: archetype)으로서 사전에서의 보편적인 정의 뿐만 아니라 심리학, 철학, 민속학, 국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왔다.

먼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잇는 융의 심층심리학은 질 베르뒤랑의 인류 구조학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융은 신화, 설화를 만들어내는 변하지 않는 신화소를 인간의 집단 무의식의 내용인 원형으로 보고 있다(C. G. Jung, 2002). 집단 무의식에는 아니마(Anima)/아니무스(Animus), 페르소나(Persona), 그림자, 자기(The Self)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원형이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융은 본질적인 실체인 원형과 원형적 심상에 구분을 두는데, 원형의 실체 존재는 정의상 무의식이기 때문에 단지 추론될 뿐이지만, 원형적 심상은 상징으로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며, 우리는 상징을 통해 원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C. G. Jung, 2002).

지리학에서는 “인간에게는 어떤 형상이나 외관을 구성하게 하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속에 존재하는, 본능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관념이나 이미지”가 근원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원초적인 관념이나 이미지를 원형(archetype)이라고 한다. 이 원형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며 지역 또한 달라져도 잘 변하지 않고 같거나 유사하게 나타난다(임덕순, 1990).

일반적으로 원형이라는 것은 본능과 함께 유전적으로 갖추어지며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보편적 상징을 의미한다. 즉, 불이나 물과 같은 상징물에 대해 갖게 되는 이미지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원형에 대한 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전승되는 과정은 유전적인 것이기에 선천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나의 집단에서 형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폐쇄적으로 갇혀 있기 보다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전인류(全人類)가 보편적으로 동일한 원형을 가지고 있다(임덕순, 1990).

임덕순이 정의한 원형(archetype)은 융이 정의한 원형(archetype)과 같이 오랜 세월을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이미지, 집단적 무의식의 생성이라는 의견에서 공통의 분모를 갖는다. 반면, 임덕순의 경우 원형을 설명하기 위한 개체로서 ‘불’의 경험을 통한 ‘소멸’과 ‘재앙’의 이미지, ‘물’의 경험을 통한 ‘정화’, ‘생성’, ‘풍요’라는 경험의 축적에서 발생하는 이미지를 제시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원형의 속성이 공동체를 중시하던 문명 이전의 시대로서 ‘집단성’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생겨난 관념 역시 원형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원형경관의 개념

원형의 개념과 속성, 경관의 개념을 고찰한 결과, 원형의 의미와 속성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원형을 이상적, 본질적인 심상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시각(C. G. Jung, 2002; M. Eliade, 1961; E. Rosch, 1975; G. Lakoff, 1987; 임덕순, 1990; 김용운, 1994; 김성연, 2004), 원형을 보이는 개체로서 물리적 형태와 구조에서의 완결성을 지니는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시각(이수정, 2003; 이윤선, 2008), 형태로서의 완결성 있는 원형과 이의 형태를 구성하는 본래적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의 모습을 원형이라고 보는 시각(김경대, 1997; 이유경, 2004)이 있다.

또한 원형경관을 논의했던 많은 학자들의 원형경관에 대한 시점과 대상, 분석 도구는 상이했지만, 원형경관 개념 자체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형이라는 용어 자체에서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원형경관은 특정 대상이 처음 발생한 시점에서 보는 관점[original type/ 유병립 등(1989); 김한배(1998); 이규목(1994)], 원형경관이 인류의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영속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상적이며 본질적 대상인 원형경관이라고 보는 관점[archetype/ 임덕순(1990); 김성연(2004)], 시대마다 구분되는 표본으로서 원형경관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prototype/ 樋口(1982); 전종한(2006); 노재현 등(2008); 신상섭 등(2008); 변우일(2008)]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원형경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대입한 원형의 개념은 완결성 있는 형태로서의 원형과 이의 형태를 구성하는 본연적 사상과 심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적용하였다.

즉, 원형경관(原型景觀)이란 인간의 사상과 문화, 경험에 의해 형성된 완결성 있는 경관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형경관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본원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심상, 사상과 종교, 인간의 경험에 의해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하고 좋은 것과 참된 것을 추구



그림 1. 원형(原型)경관의 개념

표 2. 원형의 의미 및 속성

원형의 속성	원형(原型)경관 개념
대표성	한 유형에 속한 개체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이 되는 경관
우수성	집단의 이상적 가치(사상, 종교, 경험의 축적 등)를 잘 표출하며, 미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경관
완결성	형태적, 의미적 완결성의 가치가 인정되어 오랫동안 기본적 틀이 변형되어 오지 않은 경관(원형이 진화 내지 진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퇴화 내지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함)
집단성	생산, 주거, 풍류 등 인간의 문화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집단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면서 체현한 것들이 모두 표출된 경관
시원성	한 유형에 속한 개체 중에서 시체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개체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일정 시점에서 경관의 변화 판단 기준이 되는 경관
역사성	인간이 거쳐온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사실 속에 함께 하는 물리적 구성요소, 경관
전통성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문화, 사고와 행위양식,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이 결합된 경관
향토성	일정한 지역으로서 성격을 가지며(지역성), 조상들이 생활하던 곳, 사람들이 생활공동체로서 의식을 갖는 지역사회 속에 형성된 경관

하고자 하는 원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각화되는(Schema) 문화적 산물의 구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각화된 원형경관은 본질적으로 추구코자 하는 이미지(종교 및 사상)를 통하여 형성되고, 인간의 오랜 문화와 경험에 의하여 축적되고 고착화되기 때문에 완결성이 있는 형태로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외부적 요인(전쟁, 개발 등)과 내부적 요인(사상, 신념 등의 변질)에 의해 변형되고 소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관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표본경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형경관의 개념은 오랜 역사 속에서 겪은 조상의 경험이 전형화되어 계승된 결과물로서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개화기 이전의 한국 경관, 즉 조선시대 전후의 시점³⁾에서의 완결성 있는 전형적 경관의 모습을 원형경관이라고 인식하여 접근하였으며, 이는 대표성, 우수성, 완결성, 집단성, 시원성, 역사성, 전통성, 향토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조).

IV. 원형경관의 형성 요인 분석

1. 원형경관의 형성 유형

원형경관(原型景觀)의 형성은 앞서 원형의 개념을 고찰한 것

표 3. 원형(原型)경관의 형성 유형

분류	내용
사상적 형성 요인	· 이상적인 사상과 종교를 추구(풍수지리사상, 장풍득수, 신선사상, 유교사상 등) · 근본적으로 지닐 수 있는 심리(조망-은신이론, 영역성 등)
환경적 형성 요인	· 지역특징, 농경생활, 주거, 풍류 등 인간의 공통적인 문화생활의 반복으로 참된 것을 추구

과 같이 사상에 의해 형성되는 원형과 경험의 축적에 의해 형성되는 원형으로 분류⁴⁾될 수 있으며, 이는 거시적으로 공간의 전체적인 구성, 물리적 구성 요소의 형성 및 배치에 영향을 미쳤고, 미시적으로는 물리적 구성 요소의 디자인, 크기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원형경관 형성의 두 가지 유형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원형경관을 형성하였다.

2. 원형경관의 사상적 형성 요인 분석

원형경관(原型景觀)을 형성하는 유형에 있어 인간의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사상과 종교, 신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표출된 것으로 공간의 형성, 배치, 크기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한국 원형경관의 형성에 있어, 다양한 사상과 신념, 종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것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원형경관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상적 형성 요인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풍수지리사상, 음양오행사상, 유교사상, 도가사상, 불교사상, 자연관(자연친화적 환경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표 4 참조).

3. 원형경관의 환경적 형성 요인 분석

원형경관(原型景觀)을 형성하는 유형에 있어서 환경적 형성 요인은 공간의 지형 및 지세, 인간의 사회문화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형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각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만 국지적으로 형성된 요인을 배제하고 환경과 집단적 경험에 의해 공통적으로 형성된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공간구성에 영향을 끼친 환경적 형성 요인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택리지 및 임원경제지, 토지이용, 지형 및 지세의 환경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표 4 참조).

4. 소결

원형경관의 사상적, 환경적 형성 요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형태를 공간에 따라 분리한 결과, 그 영향은 전체경관, 주거경관, 생산경관, 녹지경관, 가로경관, 기타 경관의 모든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생활상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표 4. 사상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원형경관의 형성

분류	원형경관(原形景觀)의 형성	사상적·환경적 형성 요인
전체 경관	배산임수, 장풍득수를 고려하여 주거지의 입지 선정, 양택(살아 있는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음택(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을 구분하여 도읍, 마을, 무덤, 부도 등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침	풍수지리사상
	우리나라의 전통취락은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음	자연관
	조선 시대 촌락 조성에 중요한 기준이 됨	음양오행사상
	토질이 비옥해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터 잡기를 선호함	택리지(가거지)
	빨갭과 풀을 얻기가 편한 곳, 표범이 중형하지 않는 곳에 집터 잡기를 선호함	산림경제(가거지)
	집터는 동쪽 편이 높고 서쪽 편이 낮은 곳에 집터 잡기를 선호함	산림경제(가거지)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 물이 잘 빠져 나가는 샘물이 있는 곳, 집주변에 채소를 심을 수 있는 남새밭이 있는 곳에 집터잡기를 선호함	임원경제지(가거지)
주거 경관	지형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의 다양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 보편적인 것으로 이용됨	음양오행사상
	동일한 집터 내에서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 그리고 마당과 대문의 높낮이를 말하는 평지 배치법(전차후고)으로, 모든 집터에서 그 집안의 주된 건물이 가장 뒤에 자리잡음	풍수지리사상
	사람이 출입하는 입구는 좁고 안으로 들어가면 넓어지는 형태를 띠(전착후관)	풍수지리사상
	집 배치에 있어 서북, 서남, 동북, 서쪽을 향하는 집은 북, 남, 동, 동남쪽으로 문을 내는 것을 피하며, 북, 남, 동, 동남을 향하는 집은 서북, 서남, 동북, 서의 문방위로 문을 내는 것을 피함	임원경제지(가거지)
	앞마당과 뒷마당의 구분, 사랑채와 안채의 구분, 사당의 배치 등 공간을 나누고 건물을 입지하는데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고려함	유교사상
	주거들은 방풍림으로 둘러싸인 분지 안에 자리잡고 경작지는 마을 입구 밖의 개천 주위에 위치함	토지이용
	산지와 평야가 만나는 곳(지형변환선)이나 산지의 경사가 급변하는 곳(경사 변환점), 평지와 하천이 만나는 곳이나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등 서로 이질적인 자연요소가 만나는 자리는 유리한 요건임	토지이용
생산 경관	주거지에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건물이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의 문제보다는 건물 안에서 무엇이 내다보이는지가 중시: 안대(案帶))	자연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기후 및 지형에 따라 주거구조가 차이가 남	지역적 특징
	자연에 대한 보호 사상으로 단층 건물군이 형성됨	자연관
	전후(前後)개념: 사회계층에 따른 공간의 점유가 구분되는 것으로서 위계가 높을수록 마을 공간의 뒤에 자리함(초가집, 기와집, 구조 형태 등 포함)	유교사상
	대부분 마을외곽의 경작지에는 곡물들을 심고, 안에는 주로 지역적 산물들을 경작함(식량과 연료)	토지이용
	우리나라의 경우 고랑은 골이 아니라 오히려 배수구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물이 차서 작물이 죽고 말 우려가 크기 때문에 풍토에 맞는 고랑이 발전된 한국적 작목법이 나오게 된 것임	토지이용
	자연의 개발과 파괴보다는 그것을 경관 요소로 활용하는 관점을 취했기 때문에 자연공간과 녹지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음	풍수지리사상
녹지 경관	점경물의 첨가 시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배치함	풍수지리사상
	이미 있는 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마을의 입구에 마을숲을 배치함	비보풍수사상
	각 지방에 향교, 서원이 형성되고, 공공 정원으로서의 기능을 함	유교사상
	전통 공간에 조성된 연못의 다수는 그 외곽이 사각형이며,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조성하였음(방지원도형 연못)	도가사상(신선사상), 음양오행사상
	부용동원림, 소쇄원 등 별서정원이 형성됨	도가사상(은일사상, 신선사상)
	연못 속에 세 개의 섬을 조성하거나 뜰에 세 개의 가산을 조성함	도가사상
	계곡의 절벽 위, 산봉우리에 조망하기 좋은 장소를 골라 자연의 산수를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자 함(정자는 마을 영역을 주변까지 시각적으로 확장시키는 매개물로서 인식)	자연관
가로 경관	정자, 누대, 주거지 등이 뒷산의 높이, 앞뒤벌의 넓이를 고려하며, 지붕이 높이고 크기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구릉과 자연풍광에 조화를 이루도록 함	자연관
	화려함보다 소박함을 강조하게 되어 공간을 조성하는 식재 선정에 소나무, 매화, 대나무, 국화 등이 상징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됨	유교사상
	길의 형성 및 구조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토지이용
	주거지 주변에 담장이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비보풍수
	계층의 위계 서열을 증시하여 계층별 가로를 구성하는 형태 및 크기에 차이를 보임	유교사상
	향교나 서원은 전학후묘(轉學後廟)의 원칙을 지켰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제실(齋室) 및 가묘(家廟)에서도 조상을 높은 곳에 모시도록 함	유교사상
	기타 경관	경사진 곳에서는 묘 아래에 제실을 두어 개념적으로 상하의 유교적 질서를 지키려 노력하였으며, 제실의 담 너머 인 산(구릉지)은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며 담 아래의 공간은 살아 있는 후손들의 공간임
가산과 조산, 선돌, 돌무더기, 못, 당산, 장승, 탑, 솟대, 당간, 동주, 지명 등이 형성됨		비보풍수
사당, 문중서원, 열녀 및 충신의 정려, 선산(先山(선산)) 등의 상징적 경관이 형성됨		유교사상
중요한 점경물의 하나인 석담, 석불, 석비 등이 조성됨		불교사상
구릉지는 생활공간이 아니라 신성한 공간의 산(山)으로 인식됨		유교사상

사상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원형경관(原型景觀)의 개념 정립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원형경관이란 총체적 경관의 형태적 모습 뿐만이 아니라 이의 형성 기저에 있는 영향 요인을 정립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원형경관의 이해 및 보전에 있어 형성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역정체성 제고와 바람직한 보전 및 복원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원형경관(原型景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논하며, 원형경관의 개념 정립과 이의 형성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했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원형경관 관련 선행 연구와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원형경관의 개념 및 속성을 정립하였으며, 원형경관의 형태 및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원형경관의 형성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형의 개념을 고찰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원형경관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로써 원형경관은 본연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과 이상향, 인간의 경험에 의해 좋은 것과 참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원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각화되는(Schema) 문화적 산물의 구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형경관의 속성은 대표성, 우수성, 완결성, 집단성, 향토성, 전통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원형경관의 형성(물리적 형태와 구조)은 본연적으로 추구코자 하는 이미지와 경험이 축적된 사상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판단으로, 조선시대를 전후하여 당시 원형경관의 형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사상 등을 분석하였다. 원형경관의 형성 유형을 크게 사상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는 원형경관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원형경관 형성의 사상적 요인으로서 풍수지리사상, 음양오행사상, 유교사상, 도가사상, 불교사상, 자연관(자연친화적 인간관)을 들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서 택리지,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지형 및 지세, 토지이용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각기 원형경관의 형태적 모습과 구조, 입지, 배치 등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원형경관 논의는 바람직한 보전 및 복원방안 구축을 위해 논의되어 왔지만, 이는 물리적 형태에 보전에만 치중하였던 경향이 강하다. 과거의 경관을 형태적으로 보전하는 것과 함께 과거 경관의 심층적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

질적 의미를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바로 여기에서 원형경관을 논의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기초연구로 하여 원형경관 형성 기점에서 제작된 그림, 서적 등을 탐구하여 원형경관의 물리적 실체는 어떠한 형상으로 존재하고 변해 왔는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형경관의 개념 및 속성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경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된다.

- 주 1. 김한배(1998)는 전체경관, 주거경관, 녹지경관, 가로경관, 상업경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취락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상업경관을 제외하고 기타경관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 주 2. 민족이나 문화를 초월하여 신화, 전설, 문예, 의식 따위의 주제나 모티프로 뒤풀이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겪은 조상의 경험이 전형화되어 계승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 주 3. 한국경관협회의회(2008)는 도시가 초기계획에 의해 완성되어진 때의 경관을 주례고공기와 풍수모형에 의해 도시모습이 갖춰진 조선시대 초기 태종조 말의 경관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전후하여 완결성 있는 경관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주 4. 원형경관 형성 유형에 있어서 종교, 신념 등에 의한 사상적 요인과 경험, 사회, 지역에 따른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원형경관이 다소 중복될 소지가 있으나, 일반적 논리로 적용하여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인용문헌

1. 김경대(1997) 신라왕경 도시계획 원형탐색과 보존체계설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김기덕(2007) 한국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서울: 북코리아.
3. 김상범, 허준(2005) 전통테마마을의 향토경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4): 83-93.
4. 김성연(2004) 영화 속에 나타난 원형경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용운(1994) 원형의 유혹. 경기: 한길사.
6. 김창진, 육재용, 이상해, 최병현, 최은식, 최창조(2002) 한국의 풍수문화.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7. 김한배(1998) 우리 도시의 얼굴찾기: 한국 도시의 경관변천과 정체성 연구. 서울: 태림문화사.
8. 김한배(1992) 한국전통마을과 읍성의 경관성-대조와 연쇄. 서울: 도서출판 조경.
9. 노재현, 신상섭, 박윤진(2008) 「다산도(茶山圖)에 표현된 다산초당(茶山草堂)의 원형경관(原型景觀) 탐색(探索).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2): 31-41.
10. 민태규(1976) 한국 자연부락의 전통적 Utopia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변우일(2006) 우리 풍경 찾기: 한국적 원형(原形)경관. 환경과 조경 179: 106-109.
12. 서유구 저, 안대회 편(2005) 산수간에 집을 짓고: 임원경제지에 담긴 옛사람의 집 짓는 법. 돌베개.
13. 신상섭(2007) 한국의 전통마을과 문화경관 찾기. 서울: 대가.
14. 신상섭, 노재현, 김홍균(2008) 입실 방동마을숲의 원형경관 찾기와 식생복원설계. 한국조경학회지 26(3): 78-86.
15. 심승희(1995) 역사경관과 지역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주시 한옥보존지구와 역사유적을 사례로. 지리교육학회지 33(1): 43-73.
16. 유병림, 황기원, 박종화(1989) 조선조 정원의 원형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17. 유중립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1997) 산림경제. 서울: 솔출판사.

18. 오홍석(2008) 한국의 전통마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 이규목(1994) 조선후기 서울의 都市景觀과 그 이미지. 서울학연구 1: 149-193.
20. 이범직, 김기홍(2000)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1. 이수정(2003) 현대 보존이론의 변화하는 관점에 있어서의 원형보존의 원칙. 경주문화연구 6: 200-224.
22. 이유경(2004) 원형과 신화. 경기: 이끼리오.
23. 이윤선(2008) 민속문화와 문화원형 -무형문화재와 <문화원형사업>의 문화원형담론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1): 7-38.
24. 이중환 원저, 이익성 편(2006) 택리지. 서울: 을유문화사.
25. 임덕순(1990) 문화지리학. 서울: 법문사.
26. 전종한(2006) 민속마을 외암리의 경관 원형과 경관 동학. 문화역사지리 18(2): 38-56.
27. 최원석(2003) 영남지방 비보의 기원과 확산에 관한 일 고찰. 문화역사지리 15(1): 48-64.
28. 최원석(2004) 한국의 풍수와 비보. 서울: 민속원.
29. 한국경관협의회(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서울: 보문당.
30. Jung, C. G.(2002) 한국용연구원 역, 원형과 무의식. 서울: 솔출판사.
31. Rosch, E.(197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4: 192-223.
32. Entrikin, J. N.(1991) The Between of Place, Ba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